

고흥군, 문체부 자전거 여행 공모 ‘전국 1위’ 선정

‘블루마린 & 스타로드 자전거 여행상품’ 본격 운영 추진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 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체류형 자전거 여행 모델을 발굴하는 정부 사업으로, 고흥군은 전국 8개 지자체 중 최고점을 획득하며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국비 5천만 원을 확보, 군비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자전거 여행상품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고흥군이 제안한 ‘블루마린&스타로드 자전거 투어’는 국내 자전거 여행지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섬, 해양, 우주 테마를 결

합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다도해의 풍광을 따라 거금도·연흥도·쑥섬을 거치는 ‘블루마린 코스’와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해 팔영산과 나로우주센터로 이어지는 ‘스타로드 코스’는 경관·스토리·이동 편의성이 어우러진 독보적인 콘텐츠로 호평을 받았다.

현장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라이딩 자체도 훌륭하지만, 고흥만이 가진 우주·섬 자원과의 연계성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행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체류형 여행상품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TX 자전거 전용열차를 통한 수도권 연계, 자전거 동호회 대상 ‘월린지 투어’, 지역 특산물·카페·숙소와 연계한 로컬푸드



체험 코스 등 여행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소비 확대를 기대하며, 지역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숙박시설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 기획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흥의 자연 환경과 관광 자원을 연결해 고흥만의 특별한 여행상품을 전국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고흥에서만 가능한 테마형 콘텐츠로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군, 불법 현수막 7월부터 적발 시 즉시 철거
지정계시대 이용 필수 “쾌적한 강진군, 함께 만들어갑시다”

강진군이 최근 관내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본격적인 계고 조치에 나선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군에서 지정한 지정계시대를 통해서만 게시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현수막의 게시 가능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시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 현수막과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등)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 제외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표지판, 신호등 및 횡단보도 주변 등 옥외광고물법상 게시가 금지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군은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전 계고 후 철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다. 오는 6월까지를 계고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기관 및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지정계시대 계침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수막 게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계고 중심의 점검 활동이 이뤄진다.

계고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불법 현수막 발견 시 별도의 계고 없이 즉시 철거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수막 설치 시 실명제를 도입해 현수막에 게시 의뢰인, 광고업체명, 연락처, 게시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관내 기관 및 광고업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적인 정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이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자매결연도시 주민에게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함평군은 22일 “자매결연도시 주민이 축제 기간 중 입장권을 현장에서 구매할 경우, 정상가의 절반 가격에 입장할 수 있는 특별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은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와

함평군, 자매결연도시에 ‘나비대축제’ 입장권 50% 현장 할인

협력을 강화하고, 축제 참여 기회를 확대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축제장 매표소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 해당 지자체 주민임을 확인

해야 한다.

할인 대상 도시는 함평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관광지 할인 협약을 체결했거나 예정 중인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남해군 ▲충청북도 제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상남도 함

안군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 총 7곳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할인 혜택은 자매도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자치단체 간 유대감과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함평나비대축제를 방문해서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카메라 뉴스



무안군, 2026년 국·도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2일 김산 군수 주재로 2026년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정부 정책방향, 주요 현안, 미래 성장산업과 연계된 신규·공모·지특 사업 등 총 80건, 8,463억 원의 건의사업에 대하여 대응 전략과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발굴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무안군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459억 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100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200억 원 ▲남악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82억 원 ▲톱머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1억 원 등이다.

/무안군 제공



장흥군,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의료취약지 순회진료

장흥군은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 1~2회 의료취약마을을 선정해 전남건강버스를 운영 중이다.

사업을 시작한 2023년 11월부터 총22회, 1,000여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건강버스에는 치과 유니트 체어, 심전도계, 초음파기 등 최신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골밀도 검사 등 기본 건강검진 및 의료상담을 비롯해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구강진료, 한방 침, 혈자리 압봉치 등 한방진료를 통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흥군 제공



구례군,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성황리에 마쳐

구례군은 제44회 군민의 날을 맞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구례군과 구례옥외광고협회가 협력하여 불법 광고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됨으로써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행사 당일, 군청 앞 광장을 출발로 구례읍 중심가를 따라 도심 시가행진을 펼쳤으며, 현수막과 피켓을 통해 불법 광고물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렸다. 또한, 행사장 내 설치된 홍보부스에서는 캠페인 안내문 배포, 불법 광고물 신고 방법 안내, 퀴즈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